



진종오가 6일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16 한화화장품 전국사격대회 2일째 남자일반부 10m 공기권총에서 우승한 뒤 금메달을 손에 쥐고 미소 짓고 있다.

## ‘배고픈 천재’ 진종오 “더 완벽해야 한다”

### ‘사격황제’가 말하는 올림픽

한화배 4관왕, 어깨동무 불구 실력 여전  
4번째 올림픽 “출전할수록 압박감 커져”  
“올림픽? 최대한 완벽함에 다가가는 것”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닌 노력이다!’

‘사격황제’ 진종오(37·kt)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다. 사격에선 일찌감치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그이지만,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의 사연에 대충은 없다.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자신이 출전하는 모든 무대에서 한 발, 한 발 정성을 쏟고 공을 들여 방아쇠를 당긴다.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진행 중인 2016 한화화장품 전국사격대회는 진종오의 놀라운 실력과 집중력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5~6일 이틀에 걸쳐 출전한 남자일반부 2개 종목에서 4관왕에 올랐다. 대회 첫날 주 종목인 50m 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한 데 이어 2일째 10m

공기권총에서도 개인·단체전을 씩씩이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내에서 열리는 최종 점검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극심한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갈채를 받았다. “(선수에게) 아프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좀더 철저히 몸을 관리해 올림픽을 잘 대비하겠다.”

리우올림픽은 진종오에게 4번째 올림픽 도전이다. 2004년 아테네대회부터 꾸준히 출전했다. 물론 목표도 분명하다. 한국사격 최초의 올림픽 3연패. 2008년 베이징에서 50m 권총, 4년 전 런던에서 10m 공기권총과 50m 권총 모두 시상대 꼭대기에 우뚝 섰다.

그러나 진종오의 여전한 배가 고프다. ‘올림픽’이라는 단어의 특별함과 도전을 통한 설렘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시선은 오히려 그를 더욱 자극할 뿐이다. 냉정한 말해 지구상 어느 누구도 진종오를 감히 넘어설 수 없다고 있다. 10년 넘게 국내·외 1인자의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그레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에 출전할수록 압박감은 커진다.

“아테네대회를 준비할 때 주위에선 ‘정말 잘하겠느냐’는 물음표를 보냈다. 이번엔 ‘공감 한다’로 바뀌었다.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따자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런던을 기점으로 ‘금메달리스트

니까 더 잘해야 한다’며 부담을 준다. 지금도 똑같다.”

완벽한데도 더욱 완벽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1인자’ 중에서도 냉혹한 1인자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그런데 진종오도 조금(?)해 보일 때가 있었다.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본래 그는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이 늦는 편이었다. 그러다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결선부터 1명씩 탈락자를 늘려가는 서바이벌 룰로 바뀌자, 격발시간이 빨라졌다. 총을 쏠 때마다 서로의 결과를 공장 표적지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상대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어쨌든 진종오의 다시 예전의 템포로 돌아왔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가장 잘 맞는 타이밍에 맞춰 총을 쏜다. “결선에선 긴장을 많이 하다보니 꾸준히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절박한 설명에서 나온 ‘긴장’이란 단어가 베테랑의 인간미를 새삼 풍기게 한다.

이제 리우올림픽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진종오의 답은 분명했다. “50m 권총의 준비는 거의 끝났다. 그런데 10m 공기권총은 덜 머물렀다.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불필요한 동작이 있고, 불규칙함이 느껴진다. 점수나 기록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감각을 다듬어가며 최대한 완벽함에 근접하는 시간이다.” 청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리우올림픽, 우리도 있다! -독기품은 비주류 3인의 각오



#### “한줌 후회도 없이”

‘경보영웅’을 꿈꾸는 김현섭

대한민국 선수단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종합순위 10위권 유지를 노린다. 이는 2004년 아테네대회(9위)~2008년 베이징대회(7위)~2012년 런던대회(5위)에 이은 하계올림픽 4회 연속 10위권 진입이다. 체육계가 전망하는 메달 획득 유망종목은 8개. 대회 초반 분위기를 주도할 양궁, 사격 외에 태권도, 레슬링, 유도, 펜싱, 배드민턴, 골프 등이다.

그러나 목록에 그들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도전하는 선수들도 있다. 국내에선 ‘비주류 종의 비주류’로 꼽히지만, 유럽과 북미 등 해외에선 인기종목으로 통하는 육상, 수영, 하키 등이 대표적이다. “TV 중계를 갑자기 끊고 타 종목 현장으로 영상을 바꾸는 사태가 없게끔 한 번 큰 사고를 치고 싶다”며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태권전사·남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옮겨본다.

#### ●육상 남자 경보 김현섭(31·삼성전지)

강원도 태백과 고성에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거리 조절 훈련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27일부터 2주 동안 미국 올랜도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브라질로 향한다. 리우에선 20km, 50km에 모두 도전한다. 일정상 2개 세부종목에 나서는 것은 문제없다. 포커스를 대회 후반부에 열릴 50km에 맞추고 있어, 무리가 온다 싶으면 20km 레이스를 중도에 마칠 수 있다. 솔직히 국제대회에 많이 출전하지 못한 면은 아쉽다. 연 1회 정도다. 경쟁 속에 실력과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점차 뒤처지는 느낌이 있다. 기록은 우리가 좋는데, 경기운영 노하우가 떨어져 큰 대회를 망칠 때도 있다. 경보는 육상에서도 특히 소외



#### “언제나 명예롭게”

“무조건 일낸다” 수영 백수연

된 종목이다. 주 6일, 120~150km를 걷다보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다. 그래도 먼저 걷는 누군가가 있어야 후배들이 낯설지 않으리란 생각에 열심히 걷는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4년 전 런던에서 20km 17위를 했다. 이번이 내 마지막 올림픽일 것이다. 한줌의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 ‘마라톤 영웅’으로 황영조, 이봉주를 기억하듯 훗날 ‘경보 영웅’ 김현섭을 기억해주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 ●수영 여자 평영 200m 백수연(25·경주광역시체육회)

런던에서 준결승 9위로 아쉽게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그 때는 옆 레인 선수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는 생각으로 물살을 갈았는데, 개인최고기록(2분 24초67)이 나왔다. 4월 국가대표 선발전(동아수영대회)을 준비할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다. 태극마크를 10년 가까이 달고 있다가 잠시 나가있는 새 열린 대회였다. 외부인 자격으로 나왔기에 더욱 간절히 도전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올림픽 A 기준기록은 통과하리라 믿음이 있었다. 또 한 번의 올림픽이 왔다. 20대 중반이 되자 회복능력이 조금 떨어졌다.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부 소화하지 못했다. 그레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 자신감도 있다. 평영은 상·하체 움직임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킥과 팔 회전의 조화는 나쁘지 않다. 남은 시간은 스타트와 턴 동작의 군더더기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결승 진출’ 따위의 목표에 얽매면 제 실력도 발휘할 수 없다. (오른쪽 손목의 ‘오류기’ 타투를 보이며) 뭔가 기



#### “TV에 나와 보자”

3번째 올림픽 여자하키 김정은

역에 남는, 의미가 있는 것을 새기고 싶었다. 언제나 명예로운 선수, 강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 ●여자하키 김정은(30·아산시청)

어느덧 3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그런데 리우는 특별하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르기로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최고참으로서 마지막 열정을 태우고 있다. 훈련도 많고, 몸도 구석구석 아프지만 슬픔이 없다. 동료들의 각오가 대단하다. 눈빛도 살아있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열정을 쏟고 있다. 냉정히 보면 우리 기량은 세계적 수준에서 거리가 멀다. 감각의 차이가 크다. 아주 어렵게부터 ‘즐거움’ 시작할 수 없다. 우리의 차이는 분명하다. 불리한 신체조건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지만, 스틱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감각이 없으면 불필요한 체력소모도 많아진다.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할까? 주변에선 우리의 도전이 어렵다고 보는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일단 초별리그를 통과해 8강에 오르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잊지 못한다. 경기 후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TV 중계를 중간에 끊어서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오늘 이겼나?”고. 세상 내가 ‘비인기종목’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반짝 관심’조차 항상 반갑다. 조금이나마 조명돼야 인프리가 좋아지고, 풀뿌리 선수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 희망을 줘야 한다.

태릉선수촌·진천선수촌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 오늘의 리우 8 올림픽 인프라도 최약



브라질 경찰들이 7일(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 바하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퓨처 아레나의 개관을 맞아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도로 통합안전작전을 펼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신화뉴스

### 재정 바닥...테니스장·승마장, 테스트 없이 오픈

브라질월드컵 개막을 5개월여 앞둔 2014년 1월, 스포츠동아는 한국대표팀의 대회 조별리그 경기가 벌어질 지역을 미리 방문했다. 그런데 탐방은 충격으로 끝났다. 러시아와의 1차전 장소인 아마존 남부 도시 쿠이아바의 아래나 판타우가 단연 최악이었다. 많은 공사인부들이 안전사고로 죽고 화재가 나기도 했다는 소식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철골 구조물만 갖 세운 채 황금기 콘크리트 벽을 바르는 모습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의문이 들었다. 배수시설도 없어 쏟아지는 비수에 빨간 흙탕물이 팔팔 쏟아졌다.

그럼에도 공사 책임자들의 표정은 평온했다. 밀도 끝도 없이 “잘 되고 있다”란 말만 되풀이했다. 공사는 대회 개막 직전에야 끝났는데, 현장에서 다시 살핀 결과 경기장 곳곳에 쓰다 남은 철골과 페인트 등 각종 오물이 늘어져 있는가 하면 벽면에선 누수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나마 브라질 경제가 나름 괜찮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2년 만에 다시 브라질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개최한다. 그러나 달라

진 것은 없는 듯하다. 오히려 심각하다. 축구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리우 지역의 4개 거점(바하·데오도로·마라카나·코파카바나)에서 펼쳐지는데, 상당수 경기장의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테니스장, 승마장, 벨로드롬 등이 특히 말썬이다. 당연히 해당 종목은 테스트 이벤트(프레올림픽) 없이 개막을 맞는다. 리우 시의 재정이 바닥난 결과다. 거둬들인 공사 연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려를 표명했지만, 기다림 외의 답은 없었다.

물론 국제대회는 경기장만 있다고 제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교통, 숙소 등 인공공사는 이미 중단됐다. 기존 노선마저 올림픽 기간 동안 제대로 운영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임금체불로 교통 관련 건설근로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206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고, 최대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리우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지 의문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프로 경기장 명칭, 기업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투자 촉진 ▲공공체육시설 민간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케이 스포츠 타운(K-Sports Town) 조성 등을 통한 스포츠 한류의 확산 ▲스포츠 융·복합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밝혔다.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관리위탁 기간을 확대(5년~25년 이내)하고, 제3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할 문체부는 새 내용의 조제 반영을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프로 경기장 명칭을 기업 홍보에 쓸 수 있

도록 명칭사용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 라이온즈(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프로야구 5개 구단만이 경기장 명칭을 활용해 모기업(스폰서) 홍보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명칭사용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수입 증대와 기업의 마케팅·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는 또 공공체육시설의 민성적자 해소와 유휴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교육·체험시설인 ‘케이 스포츠 타운’(가칭)도 조성하기로 했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